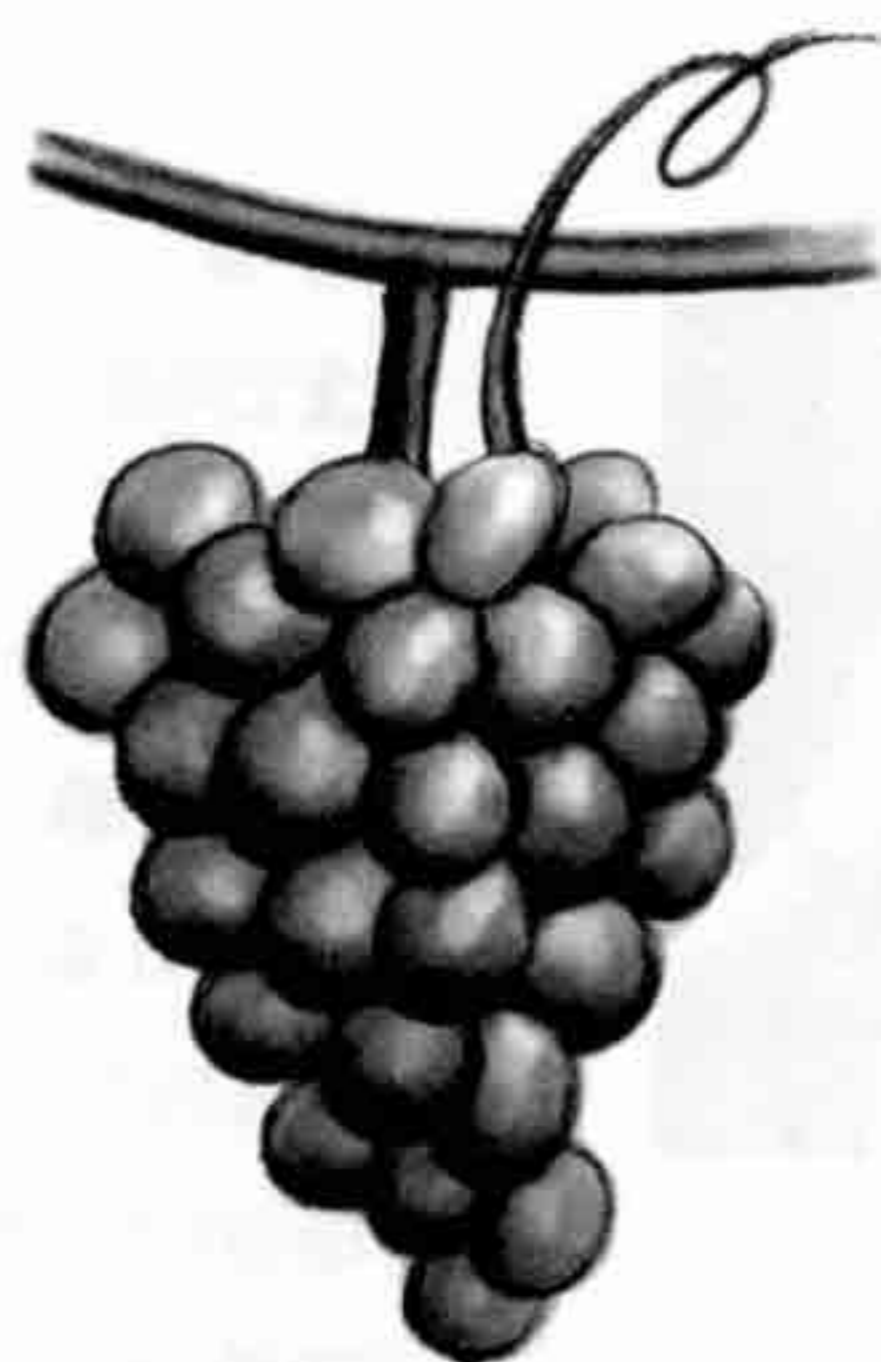


#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글\_유승도(시인)



피약별 아래 푸르름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 푸르름 아래서 포도가 익어간다. 며칠 전부터 파란 모습은 어디가고 보랏빛으로 물들더니 하루가 다르게 검은 빛이 더해지고 있다. 송이가 실하지 않아 봉지로 싸놓지 않은 몇몇 포도송이가 그러니 봉지 속의 실한 포도송이야 그 탐스러운 어둠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잡힌다.  
“까까까까까.”

급박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올해는 포도 좀 괜찮게 따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포도밭을 바라본 지 이삼 일 정도 지난 오늘 낮이었다. 소리가 들려온 포도밭 쪽으로 급히 시선을 돌려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때까치 서너 마리가 포도밭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휙이 휙이’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판자를 주워 집의 기둥을 두드려 예사롭지 않은 소리를 일으키니 그제야 마지못해 아쉽다는 듯 날개를 여유롭게 파닥여 포도밭을 벗어난다. 그러나 멀리가지는 않고 포도밭 옆 계곡가의 나무에 앉아 또 ‘까까까까’ 날카롭게 짚어댄다.

포도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로군. 그렇다면 나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나는 생각 끝에 독수리를 떠올렸다. 작년에 종묘사에서 사온 것이었다. 은판을 새모양으로 자르고 거기에 독수리를 그린 것인데, 작년엔 끈으로 묶어 포도밭 앞 전봇대에 매달아 한동안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나며 포도를 수확해야 할 시점에 들어서자 효과가 없었다.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린 때까치들이 거

침없이 날아들어 잘 익은 포도송이를 골라 봉지를 찢고 알을 파먹었다.  
일 년이 지났으니 또 잠시나마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도 모르지. 작년 일은 잊어버렸겠지. 설마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려고…….

이번엔 막대기에 독수리를 매단 뒤 포도나무 지지대에 붙잡아 댔다.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제법 그럴 듯했다.

그러나 오늘의 독수리 효과는 한두 시간의 조용함으로 끝을 맺었다. 포도밭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뽕나무와 밤나무와 낙엽송 사이를 번갈아 옮겨다니며 '까까까까' 잔칫상이 바로 여기 있다고 알리는 듯 급박하면서도 명랑한 기운이 감도는 소리를 주고받으며 몇 마리의 때까치들이 잠시 울어대더니 이윽고 떼를 지어 포도밭으로 날아들었다.

포도밭 앞길로 나아가 새들에게 돌을 몇 개 던지는 것으로 올해 때까치와의 첫 만남은 마무리 되었으나 내일부터의 만남은 어떡해야 할까? 비록 6, 70그루가 자라는 작은 포도밭이긴 하나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니, 옆집에서 하듯이 때까치를 잡아 눈에 잘 띄는 곳에 매달아두기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 산촌에 들어와 살면서 내 눈에 쏙 들어온 새가 때까치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와 긴 꼬리를 꼬덕이며 앉아 있는 모습하며 부드러운 회색빛 털로 감싸인 몸은 그 어느 새보다 내 눈을 잡았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보니 때까치들이 더 이상 그전처럼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러니, 아름다움이란 온전히 마음에 딸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아름다움 속에는 미움의 감정도 녹아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조건 중의 하나일 것임을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가능하다면 나는 때까치의 예쁜 모습을 간직한 채 살고 싶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 아닌가? †

이 글을 쓴 유승도님은 1995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나의 새>외 9편의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작은 침묵들을 위하여>와 산문집 <촌사람으로 사는 즐거움>, <고향은 있다>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글도 쓰며, 농사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